



노용호 | 우포늪생태관 관장
생태관광학 박사
(yhnoh11@hanmail.net)

다문화가정주부를 위한 생태해설사 교육 사례

1. 서론

최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주부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주부들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은 한글교육과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사용법, 문서작성법 등 컴퓨터 활용방법 등의 교육들을 하고 있다. 또한 다도교육으로 다도기구 사용법, 차 우리는 법, 마시는 법, 인사예절, 한복 입는 순서 및 방법 등 한국문화 예절 등을 행하고 있다.

그들의 삶의 질과 개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주부들의 많은 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국어인 다양한 외국어들을 구사하는 능력을 지자체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창녕군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는 랍사르 총회를 앞두고, 다문화가정주부를 활용한 생태해설사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최대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이 위치한 창녕군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주부 대상 생태해설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 우포늪과 생태해설사 교육과정

2.1 우포늪의 중요성

우포늪은 1억4천만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의 내륙 자연습지로, 1000여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존이자 생태 백화점이자 생태 박물관이다.

2.2 우포늪의 역할

우포늪은 모기 많은 젖은 땅으로 개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 우포늪은 다양한 생물 서식지, 홍수조절, 수질정화 작용, 생태교육장, 생태관광지,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습지는 자연적인 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기능 몇 가지만 간추리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습지의 기능

기능	역할	예
생태조절 기능	다양한 생물 종의 보고	가시연꽃 등
홍수조절 기능	홍수 조절	
수질정화 기능	수질 정화 작용	갈대, 부들, 창포 등
교육적 기능	생태교육 장소	
경제적 기능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2.3 우포늪 생태관 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생태해설사 교육과정

교육과목	강사	교육내용	교육일정	장소
람사르 총회 및 우포늪 생태관	노용호 박사 (우포늪 생태관 관장)	람사르 총회 및 우포늪 생태관	8월 11일 (10:00~12:00)	우포늪 생태관
우포늪의 철새	김대웅 (경북대학교)	우포늪의 철새들	8월 18일 (10:00~12:00)	창녕자원봉사센터
우포늪의 곤충	심재현 박사 (경북자연환경연구소)	우포늪의 곤충	8월 25일 (10:00~12:00)	창녕자원봉사센터
우포늪 탐방	임영숙 (우포늪 생태관 해설사)	우포늪 탐방	9월 1일 (10:00~12:00)	우포늪
우포늪의 식물	이영득 (우리 들꽃 모임 회장)	우포늪에서 사는 식물들 이해	9월 8일 (10:00~12:00)	창녕자원봉사센터

안내해설사 양성교육 추진 계획은 우포늪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 특히 외국어 구사 가능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2008 람사르 총회 행사 및 우포늪 생태관 해설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8월 초 1주일간의 교육생 모집기간을 가진 뒤 23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5주간에 걸쳐 교육이 행해졌다. 교육생들의 거주 지역은 교육이 행해진 우포늪이 위치한 창녕군은 물론 창원,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도 방문하였다.

환경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10월 28일~11월 4일)를 앞두고 람사르 총회와 우포늪 생태관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우포늪의 곤충들과 식물 등에 대한 강의가 행해졌다. 우포늪의 철새는 강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의 철새들을 수년간 관찰해온 모인호씨가 강의를 행하였다. 곤충에 대해 강의를 해준 심재현 박사는 곤충에 대한 기초에서 시작하여 우포의 곤충에 대해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었다. 우포늪 탐방은 이론 중심의 강의실이 아닌 우포늪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강의였으며, 우포늪의 식물에 대해 강의한 이영득 회장은 식물 강의 중간 중간에 노래와 시를 함께 소개하면서 교육하여 교육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우포늪 탐방을 맡은 임영숙씨는 우포늪 인근 마

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40여년이 되었다. 우포늪에 대해 잘 아는 지역주민을 생태해설 교육강사로 활용하고자했던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 다음의 심화교육 과정에서도 우포늪에 평생 살아왔던 지역주민을 활용하고자한다. 지역민의 문화와 삶에 대해 교육생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료식은 2008년 9월 30일 창녕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해졌으며 창녕군 군수가 참석하여 수료자들을 격려하였다. 교육중인 2008년 9월 16일 부산일보 김길수 기자가 동영상을 비롯한 기사를 부산일보에 기재하였다. “우포늪 해설사 되는 다문화가정주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가 나간 뒤 2일 후엔 마산 KBS가 관심을 보여 수료식을 촬영하겠다는 관심을 보였다. KBS 특집방송으로 섭외가 들어왔으나 가족의 모습을 담는다는 내용이 있어 남편들의 반대가 있어 촬영은 무산 되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주부 본인만이 나오는 EBS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행해지지만 집에서도 찬성하여 10월 11일 녹화에정이다.

수료식은 군 행정의 일정상 2번의 연기 후 9월 30일 행해졌다. KBS 마산 방송국에서 수료증을 받는 모습과 필리핀에서 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안젤리나 등이 외국어로 설명하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저자는 다문화가정주

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행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2008년 10월 1일 KBS 마산 방송에 아침 7시30분에 방영되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생태해설사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주부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8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였으며,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료증을 받은 9명 중 1명은 조사기간 중 연락 부재로 응답이 불가능하여 연락이 가능한 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 오기 전의 국적들은 필리핀 1명, 중국 4명, 일본 2명 그리고 베트남 1명이었다. 구사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였다. 질문은 우포늪 생태해설사 수업에 대한 부분과 생태와 우포, 그리고 행동의도 등에 대한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3.1 교육을 알게 된 경위

지인소개	특정단체	총계
6명	2명	8명(100%)

총 8명 중 대다수인 6명은 필리핀에서 온 특정인인 안젤리나(필리핀 출신 주부)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안젤리나와 1명의 주부는 단체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3.2 참여 동기

우포늪에 대한 관심	뭔가 배우고 싶어서	총계
5명	3명	8명(100%)

참여 동기에 대해 5명은 우포늪에 대한 관심으로, 3명은 뭔가 배우고 싶어서 참가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3.3 동식물 생태에 대한 지식 증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총계
8명	0명	8명(100%)

교육을 통해 이번 강의가 동식물 생태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는가에 대해 8명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3.4 수업에 대한 재미

재미있다	그렇지 않다	총계
8명	0명	8명(100%)

수업이 재미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명 모두가 재미있었다고 응답했다. 한편으로 이번 교육의 주가 이론중심의 교육이라 다음에는 야외 학습 중심의 현장학습을 요청하였다.

3.5 강의 이해 정도

이해	어렵다	총계
5명	3명	8명(100%)

강의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식물과 새 등의 이름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 오랫동안 살아도 식물과 새 등의 이름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대다수는 전문적인 용어인 식물과 새 이름들은 알았지만 식생 등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주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우포늪의 식물과 새 등에 대한 팸플릿이 있는 반면 베트남어가 없어 식물과 새들을 이해하고 외우기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는 사진 등을 통한 설명이 도움이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다.

3.6 우포늪의 중요성

그렇다	그렇지 않다	총계
8명	0명	8명(100%)

5주간의 교육을 통해 응답자들은 우포늪의 중요성을 배운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높은 우포늪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주부도 있었다.

3.7 생태보전 중요성

중요	중요지 않음	총계
8명	0명	8명(100%)

생태보전 중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이 중요성을 배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서 생

태를 보전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3.8 습지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이해 및 중요성	중요치 않음	총계
8명	0명	8명(100%)

이번 교육을 통해 습지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전체응답자 8명 모두가 반응했다.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3.9 교육을 통한 람사르 총회에 대한 이해

이해	모르겠다	총계
8명	0명	8명(100%)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총회에 대한 이해에서 응답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람사르 총회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국제적 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3.10 이전 본국에서의 생태교육 경험 유무

경험 유	경험 무	총계
0명	8명	8명(100%)

교과서에서 새와 식물 등에 대해 배웠지만 새와 식물 등 생태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경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11 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총계
8명	0명	8명(100%)

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 8명 모두가 만족한다고 밝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12 교육에 대한 타인 추천

타인 추천	추천의도 없음	총계
8명	0명	8명(100%)

교육에 대한 타인 추천에 대해 응답자 8명 모두가 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13 재수강 의도

재수강 의도	재수강 않겠다	총계
8명	0명	8명(100%)

재수강 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8명 모두가 재수강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두고 있는 주부들은 이 강의가 집안 어린이들 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3.14 생태해설사로 활동할 의도

의도 있음	의도 없음	총계
8명	0명	8명(100%)

생태해설사로 활동할 의도에 대한 질문에 8명 모두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과 시간, 그리고 적절한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시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부도 있었다.

3.15 남편과 가족의 태도

적극적 지지	본인이 원하면 지지	총계
5명	3명	8명(100%)

생태해설사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남편과 가족들의 대다수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하면 집안에서 하라는 응답을 보인 주부들도 있었다.

4. 결론과 제언

현재까지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주부들을 위한 교육들이 한글 배우기와 특징적인 한국문화 배우기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주부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최대의 자연늪을 가진 우포늪이 위치한 창녕군의 경우, 다문화가정주부를 통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주부 개인의 능력과 자부심 향상, 지자체의 생태 브랜드 제고, 국가적으로는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이미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시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8명이라는 다문화가정주부들의 응답자가 매우 적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추후 더 많은 응답자 수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협조,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은 물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심 그리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부록 (소개된 홍보기사의 예, 부산일보 김길수 기자, 9월 16일자)



사진 설명: 경남 창원군이 창녕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 중인 우포늪 해설사 교육에 참가한 다문화가정주부들.

“창녕 우포늪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돼 기쁩니다.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 때 영어로 우포늪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경남 창녕군으로 시집온 지 8년째인 주부 안젤라나(30)씨. 그는 지난달 11일부터 창녕군이 주최한 ‘우포늪 해설사 교육’에 참가해 17일 수료식을 앞두고 감회가 새롭다.

안젤라나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열심히 참가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람사르 총회가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젤라나씨처럼 창녕지역 다문화가정에서 우포늪 해설사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은 필리핀과 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주부들이다.

우포늪 다음달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람사르 총회가 열리면 행사의 공식 탐방코스인 우포늪은 영어와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행사 참가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안젤라나씨 등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교육수로 후 곧바로 우포늪

에 배차돼 람사르 총회를 전후해 해설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주 5회, 하루 2시간씩 우포늪 생태관과 창녕군자원봉사센터, 우포늪 등을 번갈아 오가면서 우포늪의 새를 비롯한 동식물의 기본 현황과 가치, 람사르 총회의 의의 등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며 우포늪 생태체험 등의 과정을 이수했다.

창녕군은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외국 손님들에게 우포늪을 알리는 전문요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기보다 한국문화에도 익숙해진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지난 7월 해설사 교육 희망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이번 교육의 전체 참가자 22명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다 문화가정주부들로 채워졌다. 창녕군에는 현재 136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에게 마땅한 교육기회와 일거리를 주지 못해 고민해 왔던 처지였다.

태국에서 시집온 11년차 주부 정목다(41)씨는 “그동안 한국말도 서툴고 전문적인 일거리도 없어 고민해 왔는데 태국어로 우포늪을 설명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하루빨리 늪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지 3년 된 원래튀(25)씨도 “한국에서 베트남어로 우포늪을 알리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사실에 보람을 갖고 우포늪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앞으로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우포늪 해설사 추가 교육과 심화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Plugin]: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34367@U000008682}